

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유형

이영미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The Work Stress and Coping Type of Nurses in Hospital

Young-Mee Lee

Dep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 유형을 알아보고, 상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며, 연구의 대상자는 168명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대상이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t test, ANOVA, Sheffe's test와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실시하였다. 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4.27점 이었고, 대처 유형 점수는 2.67점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학력, 근무 부서, 경력, 직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으며, 학력은 경력과 직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 직위는 스트레스대처 유형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유형을 이해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보다 나은 스트레스대처 유형을 개발하고,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 유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ess from work and stress coping methods of hospital nurses. The study design wa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There were a total of 168 hospital nurses included in this study. Data were analyzed by t test, ANOVA (Sheffe'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WIN17.0. The stress level from work was 4.27 and stress coping methods was 2.67. Marital statu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ducation level, current department, career duration, and current position. The education level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areer period and current position. Current posi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ress coping methods. A further follow-up study on nurses in hospital is necessary to relieve stress from work and to increase better stress coping methods. Moreover, to decrease the stress from work of nurs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helps them to cope with stress. In addition,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uch program.

Keywords : hospital, nurse, program, stress coping type, work stres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각 의료기관들은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기능과 조직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형화와 전문화되고 있

으며 의료수요의 증가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과 의료분쟁
의 증가 및 병원간의 경쟁심화 등으로 종사자들에게 많
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있다[1]. 특히 그 종사자들 중
에서 간호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적 특성 등으
로 인해서 심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2].

*Corresponding Author : Young-Mee Lee(Kangwon National University)

Tel: +82-10-4591-2617 email: ymlee@kangwon.ac.kr

Received October 25, 2016

Accepted November 10, 2016

Revised (1st November 3, 2016, 2nd November 8, 2016)

Published November 30, 2016

직무스트레스는 그의 정도가 높아지면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불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3]. 또한 직무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업무에 무관심해지거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며, 근무에 불만족을 가짐으로써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4].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방법이나, 또는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주위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거나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유형에 따라서 그 수준은 달라지며[5], 그런 대처행동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즉, 개인이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동일한 근무상황에서도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7,8], 직무스트레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처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9-13].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는 환자에 대한 간호의 질을 유지하고 건강유지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이용 및 보상비용 등을 절감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처 양상을 파악하여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를 파악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한다.
- 2)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 유형의 수준을 파악한다.
- 3)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 유형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의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강원도 소재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해당 기관의 간호부를 직접 방문하여 간호부서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간호부서장이 설문지를 검토한 후, 설문조사를 허락하였다.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구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였다.

2012년 6월 20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자료가 수집되었다.

설문이 완료된 후 소정의 사은품을 배부하였고, 1주일 후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효과크기는 중간크기인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분석에 필요한 최소대상자 수는 150명이 제시되어 본 연구에서의 표본 수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문지 180부가 배부되었으며, 그 중 170부가 회수되었고, 기술된 내용이 부실하거나 불성실한 자료 2부를 제외한 168부(98.8%)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유무, 학력, 현 근무부서, 경력, 현 직위로 구성되어 있다.

2.2.2 직무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Ku와 Kim[14]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직무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용은 전문직으로서 역할갈등, 업무량 과중,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대인들과의 관계 문제, 의사와의 업무상 갈등, 의사와의 기타 의료팀과의 갈등, 부적절한 인력 대우, 의료의 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 보상의 부적절함, 상사와의 인관관계,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 부하직원과의 인간관계, 직무이외의 책임, 밤 근무,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구성 되어있다. 점수는 ‘아주 심하게 느낀다’의 5점에서 ‘전혀 느끼지 않는다’의 1점까지의 5점 Likert형 척도이고, 점수 의 범위로는 최저 15점에서 최고 75점까지이다. 이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Ku와 Kim[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1이었다.

2.2.3 스트레스 대처 유형 척도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Lazarus & Folkman[6]이 개발한 대처유형 측정 도구를 Han과 Oh[15]가 번역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총 66문항을 33문항으로 축소하여 수정 보완되었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희망적 관점 영역 5개 문항, 무관심 영역 6개 문항, 문제 중심 역역 8개 문항, 사회적지지 탐색영역 7개 문항, 긴장해소 영역 3개 문항, 긍정적 관점 영역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는 ‘항상 그렇다’의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의 4점 Likert형 척도이다. 이 점수 범위는 최저 33점에서 최고 132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유형의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Han과 Oh[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5이었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척도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대처유형은 기술적 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의 수준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유형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하였다.

3. 연구의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3년제 졸업 간호사가 49.4%, 4년제 졸업 간호사는 42.3%, 대학원 이상이 4.8%를 차지하였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 6.0%, 2-3년이 11.3%, 4-6년이 16.1%, 7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6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근무 부서로는 일반병동 근무자가 61.3%, 중환자실로 8.9%, 수술실이 7.19%, 응급실이 7.74%, 기타가

14.9%로 나타났으며, 결혼유무로는 결혼은 64.4%로, 미혼은 35.7%로 나타났으며,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83.9%, 책임간호사가 7.7%, 기타가 8.3%로 나타났다[table 2].

3.2 일반적인 특성별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의 차이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별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는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간호사가 책임간호사 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별 스트레스대처유형 점수의 차이는 학력과 직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3년제 출신의 간호사 보다는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간호사가 대처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의 수준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의 수준은 스트레스는 4.27이었고, 대처유형은 2.67점이었다[표 1].

Table 1. Score of job stress and stress coping type

Variables	Min	MAX	M±SD
Work stress	2.07	4.93	4.27±0.62
Stress Coping type	1.42	3.58	2.67±0.25

3.4 대상자의 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결혼은 학력, 근무부서, 경력, 직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학력은 경력과 직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직위는 스트레스대처유형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 간에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3].

Table 2. Mean scores of job stress and stress cop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work stress				stress coping type		
		N(%)	M±SD	t(F)	p-value	M±SD	t(F)	p-value
Education level	3year college(a)	83(49.4)	3.25±0.61	1.356	0.258	2.64±0.18	2.971	0.034
	Bachelor(b)	71(42.3)	3.23±0.62			2.68±0.31		(† a,<c)
	≥Master(c)	8(4.85)	3.61±0.65			2.91±0.25		
	Other(d)	6(3.6)	3.57±0.83			2.65±0.23		
Career period(yr)	1year less than(a)	10(6.0)	3.06±0.58	0.687	0.561	2.83±0.28	1.786	0.152
	2-3year less than(b)	19(11.3)	3.17±0.62			2.61±0.26		
	4-6year less than(c)	27(16.1)	3.32±0.56			2.64±0.27		
	7year more than(d)	112(66.7)	3.30±0.65			2.67±0.24		
Current part	General ward(a)	103(61.3)	3.28±0.66	0.307	0.873	2.65±0.25	0.953	0.435
	Intensive Care Unit(b)	15(8.9)	3.24±0.53			2.78±0.27		
	Operation Room(c)	12(7.19)	3.42±0.62			2.69±0.21		
	Emergency Room(d)	13(7.74)	3.16±0.48			2.66±0.32		
	Others(e)	25(14.9)	3.23±0.61			2.67±0.19		
marital status	Unmarried	60(35.7)	3.24± 0.55	0.232	0.630	2.67±0.26	0.081	0.777
	Married	108(64.3)	3.29±0.66			2.66±0.241		
Current position	General Nurse(a)	141(83.9)	3.30±0.60	3.546	0.031	2.65±0.25	3.193	0.044
	Charge Nurse(b)	13(7.7)	2.84±0.52		(† a>b)	2.75±0.24		
	Others(c)	14(8.3)	3.39±0.79			2.80±0.20		

* p< .05, † Scheffe's test for post-hoc comparison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Variables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Current Department	Career Period	Current Position	Stress	Coping Type
Marital Status	1	.160 (.038)	.159 (.039)	.342 (.000)	.181 (.019)	.037 (.630)	-.022 (.777)
Education Level		1	-.097 (.213)	.163 (.035)	.291 (.000)	.102 (.189)	.136 (.080)
Current Department			1	.140 (.071)	-.062 (.424)	-.034 (.663)	.034 (.660)
Career Period				1	.112 (.147)	.098 (.206)	-.056 (.474)
Current Position					1	-.037 (.630)	.193 (.013)
Stress						1	.084 (.283)
Coping Type							1

4. 고찰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직무스트레스의 문항별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부하직원과의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5점 만점에서 3.77점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점수는 ‘의사와의 업무상의 갈등’이 2.7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Kang[16]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높은 항목인 ‘업무량의 과중’이 3.74이고, 가장 낮은 항목인 ‘부하직원과의 인간관계’가 2.70으로 나타나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부하직원과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의 개방적인 환경에서 자란 신세대 여성과의 차이 있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사료된다. 신세대 여성들은 타인을 중시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해서 근무하는 직장에서도 상사와 주위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사고가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직위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Yoon[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유형을 살펴보면, Park[18]의 연구에서 직위에서만 대처유형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며, 또한 학력에서 대처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Kim[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유형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대처유형간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선행연구인 Park[18]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며, Yoon[17]의 연구의 결과와는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연구의 대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문화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병원별 로 분류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특수성이 비슷한 각 부서별로 분류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의료기관의 부서 관리자들은 이런 상황을 직시하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유형을 알아보고,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스트레스 대처유형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직위에 따라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유형은 학력과 직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관리 중재와 스트레스 대처유형 개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

References

- [1] B. Y. Kim. "Job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2009.
- [2] M. S. Kim(2001). "A Study on th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University Hospital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10, no. 2, pp. 153-163, 2001.
- [3] J. U.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Psychiatric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7.
- [4] E. Y. Hong). "A study on Typology of Stress coping Strategies of Emergency room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004.
- [5] C. S. Park., I. S. Suh., J. A. Oh., E. S. Choi. "Sense of coherence and coping resources of working nurses at hospital,"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7, no. 3, pp. 348-358, 2001.
- [6] Lazarus, R. 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 Co.1984.
- [7] H. M. Kim., & S. C. Lee. "A study on stress, anxiety and coping of security agents,"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vol. 7, no. 3, pp. 157-177, 2010.
- [8] B. R. Kim, & Y. S. Park.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s' stress management in relation to work environment with job engagement and burnout respectively."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0, no. 3, pp. 199-208, 2012.
- [9] H. Kim. "Job stress, coping type, and job satisfaction in firefight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4, no. 4, pp. 323-330, 2015. DOI: <https://doi.org/10.5807/kjohn.2015.24.4.323>
- [10] Sang-Young Park, Sung-Je Cho, "Study of Job Stress news agency reporter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strategies and the impact on physical symptom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5, No.5, pp.253-262, Oct. 2015.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5.10.07>
- [11] En-Young Lee, Sung-je Cho,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exhaustion of coping Child Care Teacher (0 Ulsan District center),"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5, No.2, pp.249-256, 2015.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5.04.15>
- [12] Hye Young Choi, "Burnout and Health Status among General Employe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5, No.3, pp. 143-153, June 2015.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5.06.21>
- [13] Y. M. Kim, s. Y. Yoon, ""A Study of Ethical to improve Nurse's Ethical Value, Job Satisfac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5, pp. 277-285, May 2016. 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5.39>
- [14] M. O. Ku, M .J. Kim. "The development of the stress measurement tool for staff nurses working in the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4, no. 2, pp. 28-37, 1984.
- [15] K. S. Oh, J. S. Han. "Stressful Life Events, Health Symptoms, Social Support and Coping/i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0, no. 3, pp. 414-429, 1990.
- [16] M. J.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ping types, job stress and health status of clinic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2012.
- [17] K. S. Yoon. "A study on the job stress and coping of emergency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2003.

- [18] H. Y. Park. Job stress and coping measures of nurses in the national general hospit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University, Seoul, 2010.
- [19] Y. O. Kim. The factors of job stress and coping type of nurses in operation room.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eoul, 2006.
-

이 영 미(Young-Mee Lee)

[증신회원]



- 200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06년 2월 ~ 현재 :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노인간호학, 응급간호학